

## 법학의 기초도 몰랐던 비법학도의 합격수기



이지원

- 성심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
-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 I. 들어가며

‘말과 글로써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그것에 매료되어 저는 오래 전부터 법조인을 꿈꿔왔습니다. 법과대학이 사라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그나마 법학과의 접목이 쉽다고 판단한 정치외교학과로 진학하였고, 운이 좋게도 한 번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느낀 기쁨과 설렘은 이 좁은 지면에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첫 시험을 치른 뒤 성적표를 받고서야 변호사시험 합격은 학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법학적성시험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게 좋지도 않을뿐더러 단 한 번도 법학을 공부한 적 없었던 소위 ‘비법’학도인 저는 진도를 따라가는 것만도 급급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50명 중 32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음에도 전체 학기를 기준으로 한 졸업 성적이 4등까지 올라 좋은 성적으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기까지, 비록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찾아왔던 길들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 II. 시기별 공부 방법

### 1. 법학에 첫 발을 디딘 1학년의 시행착오와 극복

1학년 1학기는 저에게 커다란 시행착오의 기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들여 공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 절반 안에도 들지 못한 등수여서 꽤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의 담당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어느 것이 문제였는지를 자세히 여쭙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문제는 같았는데, “암기한 내용만 작성하고 문제의 해결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답안지는 학설과 판례를 누가 더 잘 아는지만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차후 변호사가 될 학생을 가려내는 시험이니만큼 사례 속에 나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결론’을 내는 시험입니다.

당시의 저는 시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부에서 시험을 보던 것과 같이 학설과 판례들을 잔뜩 외운 다음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이를 답안지에 옮겨 적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학 답안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안의 적용은 두 세줄 분량으로 넘겨버렸고, 결국 이해가 아닌 암기식 공부가 저에게는 패착의 원인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의 공부는 크게 지난 학기 복습과 다음 학기 예습으로 나누었는데, 민법의 경우 지난학기에 배운 민법총론을 복습하는 동시에 다음 학기에 배울 물권법을 예습했고, 다른 과목들은 복습할 시간이 부족하여 고민 끝에 복습보다는 예습에 힘을 쏟았습니다.

1학년 2학기는 지난 학기의 시행착오를 깨닫고 학설과 판례를 이해하여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의 예습

과 공부방법의 변경이 잘 맞아들었는지 2학기에는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행착오는 모든 분들께서 다르게 겪으실지 모릅니다. 제 시행착오는 수많은 착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시생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껏 수도 없는 답안지를 채점해 오신 교수님들이시며, 또 저희들과 같은 과정을 밟아 가신 선배들입니다. 혼자 찾아내려고 전전공공하시기보다는 많은 분들께 자문을 구하면서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 2. 2학년, 기초를 토대로 쌓아간 답안지 작성 방법

1학년 때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민법 총론, 형법 총론, 상법 총론 등과 같이 이론에 충실한 과목들이었다면, 2학년 때의 과목들은 각종 절차법, 형사재판실무 등 보다 실무에 가까운 과목들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를 담당하셨던 담당 판사님께서 “이제 막 걸으려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을 만큼, 이제 막 이론을 1회독 했을 뿐인 저에게 다가오는 실무과목들은 감을 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1학년 때에는 시행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면서 법학 답안지를 작성하는 기술적인 테크닉을 익혔다면, 2학년 때에는 1학년 때 익힌 것들을 바탕으로 정말 ‘무식하다’싶을 정도로 정직하게 공부했습니다. 즉 절차법과 실무 과목을 익힘과 동시에 1학년 때 공부한 것들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열람실 자리에 앉아서 10시까지 혼자 사례형 답안지를 작성해보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기본서를 다시 찾아보았고,

많았던 과제들은 해답지를 미리 보지 않고 밤새 머리를 싸매면서 작성하였습니다. 공부를 끝마치고 자취방까지 걸어간 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울 때까지는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놓았다가 다음 날 아침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 3. 3학년, 수 없는 반복의 과정

#### (1)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는 더 말할 수 없는 소위 ‘멘탈 붕괴’의 반복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민사법, 형사법, 공법 기록형을 모두 3학년 1학기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난생 처음 접하는 소장, 답변서, 위헌법률심사청구서 등이 너무나 낯설었고, 그나마 형사재판실무를 열심히 수강하여 형사 기록형인 ‘검토의견서’나 ‘변론요지서’는 조금 낯졌다고 여겼으나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기록형에 한 학기를 짚짚매다가 6월 모의고사를 치니 그나마 사례형과 기록형에 많은 시간을 쏟아왔던 덕에 해당 유형의 점수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식 점수는 거의 평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치중하느라 객관식 문제집에 손도 대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점수라는 것을 파악하자, 좁은 열람실 자리 커튼 속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던 것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 (2) 3학년 여름방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식을 공부할 시간은 좀체 나지 않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끝내

고 한 달 즈음 지나니 8월 모의고사 시기가 돌아왔고, 8월 모의고사가 끝나자마자 재판연구원 본시험을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여름방학은 대부분 재판연구원 본시험을 준비하면서 보냈지만, 민사와 형사 전반을 다시 훑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달렸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게 하루하루 허덕이며 보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끄럽지만 열람실 커튼 속에서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이 공부한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기분은 형용할 수 없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 (3) 3학년 2학기

재판연구원 본 시험이 끝나자 그나마 객관적으로 상태를 파악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10월 모의고사 시기까지 객관식은 거의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민사와 형사에 치중하다보니 공법은 거의 백지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부터는 혹여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이해하려 애쓰지 않고 외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자니 남은 시간은 70일 가량밖에 없었기에 회독 수를 높여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아는 문제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족했던 공법을 11월 초까지 보고, 11월 초부터 그제야 최신판례집과 객관식 문제집을 부랴부랴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객관식을 이렇게 뒤늦게 시작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 그나마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를 거치며 사례형, 기록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두 유형을 나름대로 완성시켜두었기 때문

에 마지막 두 달을 객관식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점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 (4) 3학년 겨울방학, 변호사시험을 한 달 앞두고.

변호사시험을 한 달 앞두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하루는 될 것 같다가도 또 하루는 떨어질 것만 같아 감정의 기복이 극과 극을 치달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11월 말까지 1-2회독을 해 둔 객관식 문제집과 최신판례집, 그리고 사례형 문제집을 3회독, 4회독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록형은 따로 볼 시간이 없어 그동안 작성해왔던 답안지들만 시간이 될 때마다 훑어보았습니다.

#### (5) 변호사 시험 전날 및 변호사 시험 기간

스스로의 실력이 그리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믿을 것은 실력도 운도 아니었고 오로지 3년 간 제가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지난 3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시험장에는 필수 품목 이외에도 파스, 손목보호대, 핫팩, 포도당 캔디 등을 챙겨왔습니다. 정작 점심은 한 두 손가락 밖에 먹지 못하고 내려 두었습니다. 저녁 7시 경에 시험을 끝내면 저녁을 대충 때우고 8시까지 열람실로 돌아와 다시 다음 날 시험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1시쯤 취침하려고 했는데, 막상 책을 펼치니 더 많이 보지 않는다면 내일 시험을 망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3시 4시까지 책을 보다가 3시간가량 자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 (6) 합격 확인의 순간

법무부 사이트가 다운되어 6시로 예정되어

있던 합격발표가 7시 넘어서 공지되었습니다. 그 한 시간 가량을 끊임없이 새로 고침하며 마음속으로 “딱 노력한 만큼만 결과를 달라.”고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에야 발표가 날 것 같다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무심코 다시 한 번 새로고침한 순간,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수험번호가 나열된 창이 떴습니다. Ctrl+F는 생각도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면서 수험번호를 찾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수험번호를 발견한 순간, 저와 함께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부모님께 합격했다고 말씀드리던 순간, 3년간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 III. 유형별 공부 방법

#### 1. 선택형

선택형 문제집을 고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점은 OX문제집을 풀 것인지, 5지선다 문제집을 풀 것인지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는 객관식을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문은 배제해두어 보다 빠르게 풀 수 있는 OX문제집을 선택하여 회독 수를 높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6월, 8월 모의시험을 통해서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한 공법부터 풀기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공법을 풀었고, 11월 중순까지 형사법을 풀었으며, 마지막으로 12월 초까지 민사법을 풀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보지 않았고, 모르는 부분만 형광펜을 칠해두고, 12월 초부터 2회독을 하며 또 헛갈리는 부분은 보다 진한 색으로 형광펜을 칠해두

였으며, 12월 중순부터 3회독을 하며 한층 더 진한 색으로 형광펜을 칠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1주일 전에 가장 진한 형광펜이 칠해진 부분만 다시 보며 시험 당일 아침에 볼 부분만 포스트잇을 붙여두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지문이어서 헛갈리는 부분들은 따로 정리하여 포스트잇을 붙여 둔 페이지에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긴장되는 시험 날 아침, 적어도 수 회차 반복하여 손때가 묻은 책 한권이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역대 변호사시험 문제를 보면 최신판례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사법의 경우 5개년, 형사법과 공법은 3개년 최신판례집을 구입하여 객관식 문제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독 수를 높이면서 키워드 위주로 표기해 나갔습니다. 최신판례집의 경우에도 변호사 시험 날 아침까지 모르는 것만 빠르게 훑는 식으로 3-4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 2. 사례형

민사법 사례형은 Union으로 기본 쟁점을 익혔습니다. 모든 문제를 직접 써보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문제를 보고 목차 및 키워드를 떠올리는 연습은 매일 아침 시간을 할애하여 꾸준히 하였습니다. 또한 3학년 1학기 및 2학기 민사법 사례 수업은 빼놓지 않고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답안지를 작성해보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법 사례형 역시 3학년 2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한 번씩 직접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였습니다.

행정법 사례형과 상법 사례형의 경우에는 따로 수업을 듣지 못하였을 뿐더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약점인 과목이었기 때문에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행정법은 정선균의 행정법 사례연습을, 상법은 김남훈의 상법 핵심 암기장을 구매하여 목차를 외우다시피 익히고 해당 목차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키워드들을 마치 '템플릿'을 만들듯이 네모 박스를 쳐서 외웠습니다. 즉 이해보다는 완전하게 암기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비록 올바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단기간에 공부한 것 치고는 괜찮은 점수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특정 과목에 할애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여 막판에 당황하실 준비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적은 방법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3. 기록형

기록형은 3학년 1학기 및 2학기 수업을 듣고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과제를 통해서 익혔습니다. 민사법, 형사법, 공법 모두 일년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쓰고 교수님들께 첨삭을 받으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변호사시험 대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2학년 2학기에 수강한 형사재판실무와 3학년 1학기에 수강한 민사재판실무는 형사법과 민사법 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IV. 공부 외에도 중요했던 것

### 1. 변함없는 일과 정하기

3년의 길다면 긴 고시 기간 동안, 제 일과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아침 8시 경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9시 경 열람실에 앉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및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면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 12시 또는 1시쯤 집으로 돌아가 2시 경 잠이 들었

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점심 먹은 후 느지막히 열람실에 나가 평소 때보다 조금 일찍 돌아와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간 반복된 사이클은 장기간 앉아있는 것이 몸에 익게 도와주었습니다.

## 2. 멘탈 관리하기

성적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수도 없이 무너지는 시간을 겪었던 저에게 1주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뵙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걱정하실까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렇게나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버티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과정을 겪고 있기에 제 고민을 낱낱이 알고 있던 선배들과 동기들과의 대화도 많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큰 슬럼프 없이 일관된 3년을 보내는 것이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스스로의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V. 맺으며

뒤돌아보면 참으로 짧았던 3년이, 그 순간 순간에는 정말 못 견디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은 끊임없이 응원해주셨던 부모님과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기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줄 수 있었던 동기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법조인이 된 저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에 가득 차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께 부족하나마 제가 걸어왔던 길이 미력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또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정의롭고 보다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